

2008년 7월30일 말씀

나는 운동하니까 건강합니다. 약 먹는다고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 먹는다고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고 운동한다고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을 갖고 그것을 이루며 살 때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앞날을 보면서 해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보면 씨 뿌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와서 잘 모릅니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 본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실제 처해 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실제 가서 부딪힌 사람이 그것이 뭔지 알고, 해본 사람이 알고, 물속에 빠져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지도자는 모릅니다. 지도자가 옛날 임금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가장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깝게 있어야 하나면 감각을 느낄 정도로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감각을 느끼려면 바로 앞에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물, 얼음을 갖다 놓고 얼음 한 덩어리 갖다놓고 느끼려면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가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전부, 신앙생활이 감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각입니다. 목사님들보다 직접 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은 단상에서만 쳐다봅니다. 청중만 쳐다봅니다. 개인 지도를 왜 받는가 하면 개인 지도하면 금방 바로 압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가는지 개인으로 봅니다. 20년 동안 청년부가 배우고 장년부가 배우고 중고등부가 배웠기에 알아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서 배우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책을 읽어서 자꾸 봐야 합니다. 한 번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 보면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몇 백번 봤다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러니 성경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471. 그런 것 없이 나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잘 합니다. 그렇게 알고 지도자들은 바짝 쫓아서 나와 같이 해 나갑니다.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자기 교인들 안 나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섭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마디 하니까 300-40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돌아온 사람이 220명입니다. 220명을 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 하나 잡는 것이 큰 것입니다. 크게 볼 땐 크게 보지만 작게 볼 땐 작게 봐야 합니다. 너무 크게 보면 안 되고 세계 각 나라를 전부 한 도시로 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보기에 달려있습니다. 높이뛰기도 자기가 낮게 봐야 될 수 있지 높이 보면 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도 다르게 하시고 생각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게 하십니다. 이런것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 몇 마디 한것을 묶어서 책으로 써도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온 사람들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이 많고 안에서 부딪혀서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것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런 애들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교역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이었는데 잘 모릅니다. 영계에서 쳐다보고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돌아온 사람이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섭리가 왜 잘 되는지를 기독교가 모릅니다. 그들보다 백배 천배 더 힘쓰니까 잘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몇십만번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1년동안 삼십,사십만번씩 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기독교 부흥강사들 자기들 8백번 집회했다고 했는데 다 그냥 내 밑에 있습니다. 나는 2만번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배 더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만 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할 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쳐서 넘어지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매일 회원들 이름 한명 한명 외우면서 잠깐씩 1인당 10초씩 십만번 삼십만번씩 기도합니다.